



매년 약 4만 2천여 곳에서 이뤄지던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올해는 4만 7천여 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만큼 미국의 영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주류사회에서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여 깨어나라”

제65회 국가 기도의 날 美대각성 위한 한인들의 기도 5일 은혜한인교회에서 한인 300여 명 참여해

5일 '국가 기도의 날'을 맞이해 美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남가주 지역 한인들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 약 300여 명이 모여 미국의 회개와 부흥, 국가 지도자들과 차세대, 학교와 가정, 교회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올해 기도회의 주제는 “Wake Up America(미국이여 깨어나

라)”였다. 이날 기도회를 인도한 한인 교계 지도자들은 미국의 동성결혼이나 각종 반기독교적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다시 한 번 영적 대각성이 필요하다 역설했다. 특히 이날은 JAMA가 2008년에 작성해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등의 지도자 수천 명에게 발송했던 “하나님 의존 선언문(Declaration of Dependence Upon God)”을 김춘근 교수가 낭독했다. 이 선언문은 “미국을 살리시며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즉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함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견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하고 죄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을 약속하는 거룩한 말씀에 의존함을 선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도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JAMA의 대표 강순영 목사의 사회로 한기홍 목사가 인사 말씀을 전했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사모 블레싱 나이트”

OC 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회장 민승기목사)는 오는 19일(목) 세리토스에 있는 세리토스 파크 이스트 클럽 하우스에서 '사모 블레싱 나이트'(Blessing Night for Pastor's wife) 행사를 갖는다.

올해로 6회 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녹록치 않은 이민목회의 거룩한 짐을 짊어지고 봉사하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 하 여 열 리 게 된다.

행사는 오는 19일(목) 오후 6시~9시

또한 OC교협에서는 이날 행사에 어린 자녀들과 동반하는 사모들을 위해 별도로 아이들을 케어해 줄 예정이다. 이는 비교적 젊은 사모들도 아무런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함이다.

한편 OC 교협은 이번 사모 블레싱 나이트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모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식사와 푸짐한 선물로 위로와 격려, 축복의 시간을 제공해 주기위 해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일 시까지 진행되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준비를 위해 사전 등록하는 200명의 사모들에게 행사 참여의 우선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민목회에 대한 사모 수기를 제출한 사모들에 대해서는 그 중 두 명의 사모를 선정하여 간증의 시간을 갖고 특별상(Tablet PC)을 수상할 계획이기도 하다.

사모 수기는 이민교회 목회 생활에 대한 간증으로, 레터 사이즈 두 장 분량으로 줄 간격 160%로 작성하여 OC교협 담당자들에게 제출하면 된다.

OC교협 주최
제6회 사모블레싱 나이트
5월 19일(목) 오후 6시
세리토스 파크
이스트 클럽 하우스에서

에 선물과 헌금으로 후원하며 동역해 줄 손길들도 기다리고 있다. 관심 있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

▲주최: OC기독교교회협의회
 ▲일시: 5월 19일(목) 오후 6시
 ▲장소: Cerritos Park East
 ▲장소: 13234 166th St. Cerritos, CA. 90703
 ▲문의: 이호우 목사(수석 부회장, 562-453-5644), 조형수 목사(신학 부회장, 714-267-7900), 테드 황 목사(총무, 714-488-3966)

“모든 세대와 민족에게 복음을”

해외한인장로회(KPCA)총회...총회장 유영기 목사·부총회장 박성규 목사·장로 부총회장 한기하 장로 선출

제 41 회 해외 한인 장로 회(KPCA) 정기총회가 “모든 세대와 민족에게 복음을”이란 주제로 10일~12일까지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유영기 목사가 모든 총대들의 박수로 총회장에 추대됐다. 목사 부총회장에 대해

서는 단독입후보한 박성규 목사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가 이뤄졌다. 총 271명이 투표에 참여해 213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5명이 기권하면서 박 목사는 당선 확정 지었다.

KPCA는 부총회장의 경우, 대서양 지역과 태평양 지역이 번갈아가며 후보를 배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지난 40회기 총회장이 대서양 지역인 뉴욕노회의 김종훈 목사(뉴욕예일교회 담임)였으니 당연히 41회기는 태평양 지역인 LA노회의 유영기 목사가 총회장이 됐다. 이 순서에 따르면, 42회기 총회장이 될 이번 목사 부총회장은 대서양 지역에서 출마해야 한다. [관련기사 3면에 계속]

“신뢰회복과 교계화합 위해 노력할 것”

남가주교협 회장에 강신권 목사 선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신권 목사(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가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9일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울 목사)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은 회장에 단독입후보하고 공천받은 강 목사를 투표 없이 박수로 뽑았다. 이로써 지난 제46차 정기총회에서 각종 루머로 인

해 회장에 낙마했던 강 목사는 5개월여 만에 회장에 오르며 명예를 회복했고 남가주교협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이번 총회에는 50명이 등록했으며 이 중 47명이 참석함으로써 개최됐다. 공천위원회 서기였던 백종운 목사가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3-7-21 재능캠프
 재능 개발: 토렌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다윗의노래' 합창단이 첫 정기연주회를 하나님께 드린다.

“찬양회복운동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창단 4개월의 '다윗의노래'합창단... 첫 정기연주회는 하나님께

'다윗의노래' 합창단(상임 지휘자 송규식 목사)이 창단 4개월 만에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 합창단은 성악을 전공한 음악인들로 구성된 전문합창단으로 지난 1월에 창단되었으며 사레비를 지급받고 있다. 현재 단원은 모두 25명으로, 20명 이상이 성악 전공자들이며 부지휘자는 여선주, 피아노 반주자는 김유경이 각각 맡고 있다.

특히 지휘자 송규식 음악목사는 40여 년 동안 교회음악에 종사해 왔으며 한국과 미국(남가주, 시카고 등), 캐나다(토론토), 이스라엘(예루살렘) 등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해 왔다. 특별히 Jerusalem Performing Art Center에서 이스라엘 심포니와 헨델의 '메시아'를 협연한 바 있고 코스타메사 갈보리채플(척 스미스 목사) 초청으로 '메시아'를 연주한 바 있다.

부지휘자 여선주는 LA매스터코랄과 LA Opera 단원으로 15년 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Roger Wagner Choral 등 여러 음악단체와 음악회에서 독창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윗의노래' 합창단이 첫 번째 연주회를 연주회장이 아닌 교회를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연주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와 더불어 진정한 찬양회복운동을 위해 교회와 접촉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연주회 프로그램은 제 1부 첫 번째 무대는 무반주 성가곡으로 중세 르네상스 Anthem과 한인 작곡가에 의한 현대 성가곡으로 구성되며, 두 번째 무대는 이병희씨가 작곡한 Horn Mass(Kyrie, Gloria, Sanctus, Agnus Dei)로써 Latin Text를 사용하지만 독특한 한국적 색채를 담은 현대성가이다. Horn Mass의 독창자는 소프라노

여선주, 메조소프라노 김승희, 테너 오인석, 바리톤 장상근이다.

제2부는 Praise Worship으로써 드라마틱한 찬양예배 형태를 가진 특별한 무대가 연출될 것이다. 독창자로는 소프라노 양유진, 메조소프라노 조지영, 테너 오위영, 바리톤 최승재, 베이스 이사효가 각각 출연한다.

크리스천 문화 창달과 문화선교의 일환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창단된 '다윗의노래' 합창단은 비영리단체인 '홀리보이스 미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는 Dr. GO, LISAA, KORUS Medical Group 등이 후원하고 있다.

▲일시: 5월 22일(주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임마누엘장로교회
▲주소: 3300 Wilshire Blvd., LA, CA 90010
▲예매처: 홀리보이스(714-699-0210)/김스피아노(714-373-8000)

“남가주교협 회장 강신권 목사 선출”



남가주교협 회장에 당선된 강신권 목사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1면으로부터 계속] 이번 총회에는 50명이 등록했으며 이 중 47명이 참석함으로써 개최됐다. 공천위원회 서기였던 백종윤 목사가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백 목사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발생했던 혼란과 갈등을 의식한 듯 “찬반 의견을 순서대로 공정하게 들겠다”고 밝혔다.

공천위원장 한기형 목사가 “강신권 목사를 회장 후보로 공천한다”고 보고한 후 백 목사는 회원들에게 “이에 반대한다면 발언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반대도 없었다. 이어 “지지한다면 발언해 달라”고 했고 류당열 목사가 “박수로 추대하자”고 제안했다. 백 목사는 “반대가 없으니 전원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찬성하시면 박수하자”고 했고 회원들은 박수했다. 이후 “혹시 반대한다면 지금이라도 표시해 달라”고 했지만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 모든 절차 후 백 목사는 “만장일치로 강신권 목사가 회장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지난 총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소위 3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질문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그동안 있었던 루머들이 회원들에게 해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해소되었다 볼 수도 있으며 동시에 남가주교협이 처한 위기에 대해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회장 선출이란 한 가지 안전만을 놓고 열린 이번 임시총회는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해 예배를 드린 후, 일상천리로 진행돼 오전 11시 40분경 끝났다.

강 목사는 “40년 이상 남가주에

서 목회하며 이곳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다. 어려운 시간에 수고하신 수석부회장 김재울 목사와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 이 교계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남가주교협이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하고 발전하며 섬기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회를 마친 후, 김재울 목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새 회장을 빨리 모시는 것이 교계 화합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순응했다.

김 목사는 회장 공석 사태를 맞이한 남가주교협을 회장 대행 자격으로 이끌면서 사랑의 쌀 운동, 부활절 연합예배 등 남가주교협의 굵직한 사업들을 감당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천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남가주교협은 회장 공천과 관련된 논란을 의식해 공천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공천위 보고에서 한기형 목사가 이를 공개했다.

공천위원은 한기형(위원장), 강부용, 이우형, 최형호(회계), 조병국, 벤자민 박, 박준형, 정종윤, 서니코바야시, 피터 김, 홍옥예, 백지영, 홍기준, 다이앤 신, 백종윤(서기), 최학량, 이주철, 제임스 김, 이창건, 송재호, 이황영, 최국현, 문일명 등 23명이었다.

한편 신임회장 취임예배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세계성경장로교회(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에서 드린다.

김준형 기자

정승재 집사 OC 심포니 객원지휘

5월 15일 오후 6시 30분

오렌지 카운티 심포니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정승재 집사가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 오렌지카운티 심포니에서 콘서트를 객원지휘 한다.

Carl Nielsen의 곡 'Suite for Strings'를 지휘하며 비발디 사계 중 '여름'과 '겨울'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현재 정승재 집사는 은혜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클레어몬트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로 박사학위 과정에 있다. 이번 지휘 이후에도 내년 오렌지 카운티 심포니에



정승재 집사.

서 객원지휘를 한다.
▲일시: 5월 12일(주일) 오후 6시 30분
▲참조: www.ocsymphony.org

▲장소: Anaheim First Christian Church
▲주소: 520 W. South St., Anaheim, CA 92805

“ 감사해요 ”

8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박형만 장로)는 이 센터 2층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푸짐한 경품과 함께 위로의 잔치를 열었다.



마리포사 나비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율동으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후원 및 광고 문의 Tel: 213-263-1364 / 213-820-9414
보내실 주소: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Pay to Order: SCKMA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이민사회가 건강하다”

남가주한인목사회장배 목회자 힐싱 탁구대회

● 일시: 2016년 6월 20일(월)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소: 현대탁구장 (박홍자탁구교실) / 213-798-3333
3625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 참가대상: 남, 여목사, 사모, 선교사

● 참가비: 20불 (여성, 선교사, 70세이상 참가비 없음)
기념품 및 점심식사 제공

● 마감일자: 5월 31일 화요일 (E-mail: umkyusu@gmail.com)

● 문의: 213-263-1364 / 213-820-9414 / 213-272-6031

● 조직: 대회장: 엄규서 목사
부대회장: 최순길 목사, 김중용 목사
준비위원장: 심진구 목사, 안기정 목사
회계: 허만진 목사 / 부회계: 임성수 목사
진행위원장: 김영배 목사, 김경일 목사
위원: 최경일 목사, 강지원 목사, 백현 목사, 조하림 목사
김영구 목사, 김관진 목사, 송영일 목사, 김용 목사, 양경선 목사 여호수아 이 목사

● 일정:

예선전 오전 9시 - 11시 30분
친교 및 점심 오전 11시 30분 - 1시
준결승 오후 1시 - 2시 30분
결승 오후 2시 30분 - 3시 30분
시상 및 행운권 추첨 오후 3시 30분

● 시상

대상 한국왕복 항공권	1등 귀생당 산삼 녹음대보환 (\$380)
최우수상 국내여행권(3박4일)	2등 덕터마우스 (\$200)
우수상 국내여행권(2박3일)	3등 귀생당 케노환 (\$180)
30,40세 1등, 2등, 3등	
50,60세 1등, 2등, 3등	
70세이상 1등, 2등, 3등	
여성 1등, 2등, 3등	

주 최 남가주한인목사회 후 원 남가주교회협의회 / 한국일보 / 한인회 / 한국장외사 / 상호관광 / 박홍자탁구교실 / 기독교서적센터 뉴스타트로피 / 오대산 / 이태리양복점 / 크리스천비전신문사 / 우리복음방송 / 크리스천헤럴드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 남가주 그리스도교회 연합회 /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태평양 서남지방회 미주크리스천신문 / 연목회 / 장신동문화 / 서울기독교대학교동문화 / 국민일보



KPCA 제41회 총회가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10일~12일까지 열렸다.

“제41회 KPCA 정기총회 개최”

[1면으로부터 계속]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대서양 지역 노회에 속한 목회자의 출마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목사 부총회장 후보 추천권이 태평양 지역으로 넘어왔다.

이에 서노회에 속한 박성규 목사가 출마한 것이다. 즉 큰 이변이 없다면 남가주에서 2년 연속 총회장이 나오게 된다.

장로 부총회장은 대서양 지역에 속한 뉴욕노회의 한기하 장로, 뉴저지노회의 김영일 장로가 출마했다. 28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0명이 한기하 장로에게, 76명이 김영일 장로에게 표를 던져 한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5명은 기권했다.

10일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시작

된 총회는 임원 선거와 임원 교체 를 마치고 공전현의위원회의 보고 로 이어졌다.

11일부터는 각종 회무 처리가 시작되었으며 총회의 모든 일정은 12일에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한국 대만에 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목사 부총 회장인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담임)와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장 배현찬 목사(주예 수교회 담임) 등이 형제 교단의 총 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또 개회예배 중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 순서도 가지며 임 목사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김준형 기자



유영기 총회장



박성규 부총회장



한기하 장로 부총회장

[크리스천 비즈니스]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일”

LA 한인타운 중심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컴퍼니 “소피아 프로덕션”이 출범했다.

“이 프로덕션의 네이든 리 대표는 “규모 면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이지만, 생각은 크게 하는 성인(聖人)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광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문화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측면이라고 한다.

“광고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가 즐거우면 브랜드의 인지도나 브랜드의 파워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봅니다. 광고주가 브랜드의 스폰서가 되어 소비자를 위해 시대의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반면 한편에서는, 광고는 생존입니다. 브랜드 및 제품 관련 디자인과 홍보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마케팅 활동은 궁극적으로 생존을 위한 것이죠. 자신이 내린 결정이 바로 승패를 가르는 기업이나 상인에게는 고도로 발달된 더듬이가 있어요. 소피아 프로덕션은 그 분들의 더듬이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로 무장시켜 생존의 길을 찾는 데 힘입는 마케팅 툴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이든 리 대표는 1989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를 졸업(14회)하고 그 해 겨울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다. 맨하탄에 소재한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에서 광고를 전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우수한 광고대행사에서 대기업 TV-CF를 기획 및 제작하는 PD를 했고, 전파광고와 인쇄광고 전체를 이끄는 아트

디렉터를 했다. 그리고 홍익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중 2007년 이곳으로 이민오게 됐다.

소피아 프로덕션은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타는 광고와 그래픽 디자인을 다 할 수 있다. 거기에 TV광고/홍보영상/뮤직비디오 등을 위한기획, 스토리보드와 간단한 비디오 편집 등을 소화할 수 있어 광고대행사, 마케팅 회사, 영상제작사, 영화계 종사자와의 협업이 가능하다. 상업용, 개인용(인물)초상화나 정밀묘사 등 드로잉 제작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타회사와는 차별화된다.

네이든 리 대표는 로컬 광고들에서 How-To에 집중하는 사례를 자주 본다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Why 혹은 What과 같은 질문으로 출발해 그 비즈니스만의 ‘고유성’을 이미지나 카피로 승화시킨 광고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신문을 보더라도 이 광고가 저 광고와 비슷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는 광고주가 내주는 속제를 충실히 해내야 하는 직업적 속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영업만을 지향하는 순간 창의성의 생명은 끝이 난다고 한다.

또한 맹목적으로 타사 광고를 흉모하다 보면 내 것이 아닌 결국 어정쩡한 입장에 서게 되고 만다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고 강조한다. 그 점에 있어 소피아 프로덕션은 다르게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이미지를 굳혀 나갈 계획이라고도 한다. 속제와 창작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시소게임은 그에게 있어 크리에이티브의 길에서도 유쾌한 질주보다는 고독한 산책과도 같다.



소피아 프로덕션 네이든 리 사장.

1개월 앞둔 한인세계선교대회



행사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고석희 사무총장

전 세계 한인 선교의 율리픽인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개최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관계자들이 대회 준비 상황 점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6일(월)~10일(금)까지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지구촌 미완성 과업의 완성을 위한 비전 회복”이란 주제 아래 개최된다. 이 대회 참석 선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4년마다 7월 초에 개최되던 대회를 6월 초로 앞당겼다. 또 28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지를 시카고 휘튼대학교에서 LA 인근 아주사대학교로 옮긴 만큼 이번 대회 준비는 이전 대회들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0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공동 준비위원장단 회의에서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고석희 사무총장은 “중부에서 행사를 연다면 고정 참석자 3천 명은 확보된 상태이겠지만 서부에서 처음 대회를 하다 보니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주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부에 세계 선교의 불이 붙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현재까지 선교사는 820여 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사무총장은 “LA에서 적어도 1천 명은 참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선교사 1천 명, 목회자와 평신도 2천 명, 청소년 5백 명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녁 집회에는 7천 명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하루 한 번 저녁 8시~10시 사이에 대회를 위한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공동 준비위원장단 8명이 한 조를 이루어 교회마다 홍보하고 성도들의 참석을 독려하기로 했다. 등록은 www.kwmc.com 참조, 문의는 남가주본부(213-514-8610)로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팔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금 해설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리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www.e-nca.org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 (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7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 (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명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Since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00-3588,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2천여 명이 참석한 제38회 피어스 카운티 조찬 기도 모임.

“한미 교계 美복음화 위한 상호 협력 다짐”

워싱턴 주 피어스카운티 조찬기도회...워싱턴 주 교계 및 각계 지도자 2천여 명 참석

제 38회 워싱턴 주 피어스 카운티 조찬 기도회가 6일 워싱턴 주 정계, 교계, 사회 각계 지도자 및 각 군 통수권자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타코마 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타코마 지역 한인 교회인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와 한인들이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미국 사회에 감사를 표했고, 워싱턴 주와 美복음화를 위한 한미 교계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본국의 유명 블랙가스펠 그룹인 소울 싱어즈가 개회 찬양으로 “갓 블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를 부를 때는 6.25 전쟁부터 현재 한국의 발전상이 영상으로 소개돼, 미국 사회에 큰

감동과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단 위에 오른 클레오 조(타코마 제일침례교회, UW 2) 양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미국 국가를 불러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기도회에서 폐회 기도를 한 타코마 기독교회연합회 회장 최성은 목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미국의 가정과 사회가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최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워싱턴 주로부터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할 때는 장내 이곳저곳에서 아멘이 터져 나왔다.

최 목사는 “미국 교계가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알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며 “이제는 한인 교회가 망설이기보다는 美주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도회 이후 참석자들은 “미국 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해주시정 말 감사하고 타코마 지역 한인 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은혜로운 기도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미 교계가 동반자로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할 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는 팻 맥카시 피어스 카운티 군수를 비롯, 메릴린 스트릭 랜드 타코마 시장, 법무장관, 군 지도자 등 각계 인사들 모두 참석해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12. 포로로마노

클룻세움에 비치는 석양빛을 받은 바울의 얼굴이 종종 떠오른다. 예루살렘에서 포송되어 가이사르의 재판관을 기다리는 동안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이. 제국의 변방에서 이미 흠러와 일부 유대인자들 사이에 주목받던 청년 예수 죽음에 대한 이야기. 포로로마노의 빛나는 건축물과 자긍심 높은 로마 시민들 사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나 기이하게 퍼져나간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 하여도 어찌면 그리 찌질한 민족을 골라신을 자처했는가 나무라며 이제 어찌하여 모든 민족과 로마의 유일신이 되고자 하는가 공박하던 집정관의 지적에, 흔들림없이 자신이 보고온 하늘과 신의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예수의 죽음을 논증하던 바울의 그 확신에 찡뎠던 얼굴. 이 어리석은 구원의 도는 따르기로 한 지금도 나를 갈등하게 하지만, 날 것 그대로의 바울은 참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바울의 힘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봐도 그렇다. 예수가 오기전 450년이나 전에 만들어진 12표법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내용은 구체적이다. 제6편 10조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전제한 가운데, 남편은 이혼을 원할 경우 반드시 여자에게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제8편에는 건물과 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해두었는데, 1조는 빌딩을 지을 때 건물과 건물사이에 최소한 2.5 pes(저자주 - 로마제국에서 거리를 재는 도량형으로 pes는 현재 영미국가의 foot과 비슷하다. 1 pes는 약 30센치미터)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로마의 정갈하고 멋진 건물들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제10편에는 종교의식에 대해 규정하는데, 14조에서는 장례식은 한사람에 대해 오직 한 번만 허용하며, 관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유층 사이에 사치를 막기 위한 법조항이다.

이러니 로마시민권을 모두 얻으려 한다. 일단 부부 중 일방이라도 시민이면 그 사이에 난 자녀는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 놀랍게도 해방노예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준다. 시민이 아닌자도 군대에서 복역하고 나면 시민권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돈으로 사는 길도 있다. 물론 굉장히 높은 가격에.

13. 겨울비

항상 기뻐하라고 권하는 말이 있음은,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기 때문일 터이다. 든든한 가족과 벗이 곁에 있음에도 삶의 무게에 마음 한켠 쓸쓸해 지곤 한다. 구원이 내게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 당위보다 동산에 올라 외로움을 고백하던 인간 예수를 바라본다. 내리는 슬픔을 너무 곱씹지도 애써 외면하지도 않으리. 겨울비가 차분하게 지붕을 때린다.

14.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로마는 참으로 법의 나라이다. 12편의 소제목아래 총 113조로 구성된 소위 12표법(저자주 - 로마 최초의 성문법, THE LAWS OF THE TWELVE TABLES)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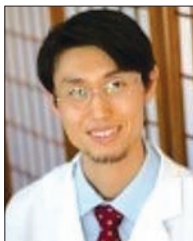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영성수련회

“한 손에 복음 다른 손에 한의학”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이기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1박 2일간 영성수련회를 개최한다.



유해동 목사
의의나무교회 담임



헨리 윤 원장
YoonMin한의원

- 일시: 5월 29일(주일) 오후 5시~30일(월) 오후 2시 30분
- 신청마감: 5월 15일(주일)까지
- 신청방법: www.COMAAA.org
- 참가비용: 20불
- 장소: Love&Grace수양관
- 주소: 5889 Ailanthus St. Phelan, CA 92371
- 문의: 김재영 부총무(425-412-0468)/윤주현(213-550-6378)

제65회 국가 기도의 날

[1면으로부터 계속] 이어 OC 목사회장 광재필 목사가 대표 기도, OC기독교영신도연합회장 윤우경 집사가 성경봉독,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가 설교했다.

또 참석자들은 1) 회개와 부흥 2) 학교와 가정 3) 교회·문화·사회정의 4) 대통령과 국가지도자 및 선거 5) 청년·차세대 부흥 및 학생단체와 선교 6) 고국의 지도자들과 부흥·안보·통일 등을 위해 기도했다.

전체 기도회는 OC교협회장 민승기 목사의 사회 아래 각 주제별로 5명의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OC장로회장 김종대 장로가 헌금 기도하고 OC원로목사회장 박승환 목사가 축도했다.

주최 측은 이 행사에서 나온 헌금을 오는 10월 23일 다민족 기도회 준비에 사용한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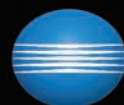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말씀 순종의 신앙을

신명기 8:1-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는 인격적인 결합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영적 가치와 체질과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자객 갖추기를 원하심

1절과 2절을 분석해 보면 양면성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1절은 소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챙기고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세상 종교는 정성만을 요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요구하시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십니다.

신앙보다는 신념을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해보다 안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가짜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 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와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모든 조건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2. 낮추시고 밟으시고 시험하심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세월은 사람의 일평생의 절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격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길을 끌고 다니십니다. 직행하면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빨리 걸으면 가나안 땅까지 10일에서 천천히는 12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도록 하시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남의 영토를 짓밟고 전쟁까지 하게 하시며 여러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한 400년의 1/10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이대로는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

나님 보실 때 합격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험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걷게 하시고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눌러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기병과 마차까지 동원하여 불안한 위기 직전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벽으로 모세의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을 일으켜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셨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군대는 물을 합치심으로 말과 군대 모두가 산채로 물살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승리의 쾌감을 느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기적을 통해 감사와 겸손과 순종보다는 우월감과 교만의 오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면 자기가 무엇을 얻어내고 고침 받고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어떤 댓가를 요구하며 사기꾼의 근성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세와 교만으로 들떠있는 백성들을 낮추셨고(2절, 3절) 허세와 교만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을 삼기위해 낮추시고 밟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들중에서도 직분에 맞는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없이 허세와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낮추시고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계속하여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테스트(test)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신자들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합격점에 오르게 하기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템테이션(temptation)입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3.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씀절대주의 신앙이 되라

누가복음 5장 2절 이하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해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시고 해변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들을 확인시켜 주실 필요를 느끼시고 한낫(11-12시쯤)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하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맑은 갈릴리 바다에 한낫은 햇빛이 그대로 투과되어 바닥이 보이고 고기들 또한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낚이는 도망 가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언제나 고기를 밤에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특히 낮에

그물을 내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며 그 심령계 불들리기 시작했고 사로잡혀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전문 지식으로도 밤새 헛수고를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한낮이었음에도 물고하고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오라하여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고 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로 삼기위해 나타내신 말씀권능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믿도록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입체적인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받아 얼마나 서둘러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는가를 잘 믿는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은 엄청난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주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낮추시고 굽게 하십니다.

4. 만나로 먹여 주시는 하나님

굶으면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겠지만 영적으로는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영과 육의 합성체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계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잘 믿는 믿음입니다.

5.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5-10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할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느니라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켈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곡식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온갖 과일과 꿀과 벌도 많은 기름진 곳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곳은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더 겸손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합작의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명령이라 할찌라도,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David Song Singers 1st Concert

5.22 (Sun) 2016 7:30pm
Immanuel Presbyterian Church
3300 Wilshire Blvd., LA, CA90010



지휘: 송규익 반주: 김유경



Horn: Dylan Hart, Trumpet: Michael Davis

Acappella Anthems

Solo Yoojin Yang, WiYoung Oh

Horn Mass

Solo Sunjoo Yeo, Gloria Kim, Inseok Oh, SangKeun Chang

Praise Worship

Solo SeungJe Choi, WiYoung Oh, James Sahyo Lee, JiYung Cho

주최: Holy Voice Mission

후원: Dr.GO, LISAA, Korus Medical Group

에매처: Holy Voice 714)699-0210
김스피아노 714)373-8000

Church
Everyday

사역자 청빙 광고

Los Angeles Northridge 지역의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1 목회부 사역자(남자 1명, 여자 1명)

- a. 자격요건
 - i. 정규 신학 대학원에서 신학석사 (M.Div)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분
 - ii.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에서 목회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b. 지원서류
 - i. 이력서 w/가족사진
 - ii. 신앙고백 및 자기 소개서
 - iii. 목회자 추천인 2명 (이름, 소속단체, 전화번호)

2 기타내용

- a. 청빙 신청 마감은 2016년 5월15일까지입니다.
- b.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c. 서류를 보내주시길 이메일 주소:
(churcheveryday99@gmail.com)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 받습니다

에브리데이 교회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가정의달 특별기고

바울의 가정 행복론



송재호 목사
하늘샘교회

올해도 어김없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복된 처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 우리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문제들을 듣곤 한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왔던 “경로효친” 사상들이 허물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에 관하여 어떠한 성경적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8절~4장 1절의 중심적 내용은 “기독교인의 가정생활”과 “가정윤리”에 관한 교훈이다. 무엇보다 사도바울은 가정이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지정해 주신 놀라운 조직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관계 속에서의 질서”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는 아내와 남편간 서로의 존경과 섬김의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20절과 21절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순종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는 상전들과 종들 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존재하며 이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도 첫째날 빛을, 둘째 날은 물과 공기를,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전체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셨고 이러한 질서가 지켜질 때 아름다움이 유지되게 됨을 배우게 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질서가 깨어진 것”에서 시작이 된다. 자연 세계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원인을 연구해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지 못함에서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사건, 가정파괴, 노인 폭행사건, 그리고 동성애 문제 등과

같은 대표적인 문제의 원인들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질서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 영국의 저술가이며 사회개혁자인 새뮤얼 스마일즈는 말했다. “질서는 시간의 훌륭한 지배자다. 왜냐하면 일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한 시간은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서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과 결부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정에는 질서가 존재한다. 상호간 섬김과 사랑, 그리고 순종의 질서가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질서가 존재한다. 충성과 봉사 그리고 성실함으로 주께 하듯 하는 질서가 존재한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랑과 화평, 그리고 섬김과 헌신, 존경의 질서가 존재한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질서를 깨닫고 순종할 때 찾아온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해 살자.

어머니께 드리는 아들의 편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요즘을 필자는 어머니를 자주 생각한다. 어머니는 아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 같다.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편지를 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오늘은 어머니께 편지를 드리고 싶다. 어머니는 필자가 군복무를 하던 3년 동안에 한 주일에 한통씩 편지를 보내 주셨다. 나는 마치 연애편지를 받듯이 어머니의 편지를 받곤 했다. 군대 생활은 외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가 나의 외로움을 많이 달래주었다.

어머니의 편지는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지만 받을 때마다 새로웠다. 마치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이 늘 비슷하지만 새로운 것처럼. 어머니의 밥상에 실증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어머니의 편지는 늘 좋았다. 어머니의 편지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외로움과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애뜻한 눈물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글 속에는 고난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고난 속에 사셨다. 가난과 고난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따라다녔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셨다. 어머니는 한 맺힌 생을 사셨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셨고, 기도를 통해 가슴에 맺힌 한을 푸셨다. 예수님은 어머니께서 한 맺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 어머니는 고독하셨다. 늘 수줍어 하셨고, 사람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친구가 없이 한 평생을 사셨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지 않으셨다면 어머니는 정말 외로웠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고독을 통해 고독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고독을 친구삼아 사는 법을 배웠다. 고독을 통해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고독을 통해 내면을 가꾸는 법을 배웠다. 고독을 통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성의 샘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는 법을 배웠다. 고독을 통해 글쓰는 법

을 배웠다. 어머니는 연약하면서도 강하셨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용기 있게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셨다.

어머니는 참 고상(高尚)하셨다. 비록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으셨고, 가난하게 생활하셨지만 결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언제나 단아한 모습으로 사셨다. 한복 입기를 좋아하셨고,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자세를 흐뜨리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다. 큰 성경을 펴 놓고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필자가 가슴에 품고 사는 모습이다.

어머니는 필자가 훌륭한 목회자, 무엇보다 겸손한 목회자가 되길 원하셨다. 잘 될 때 교만한까봐 많이 염려하셨다. 어머니의 바람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으려고 늘 힘쓰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어머니가 존경스럽다. 나도 어머니처럼 나이가 든 후에도 단아한 모습을 지니고 싶다. 늘 자신을 잘 가꾸셨던 어머니를 닮고 싶다.

이브, 모든 인간의 어머니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인류 최초의 어머니가 된 이브, 즉 “하와”의 의미는 “생명”이다. 이는 남편,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에서 나온 최초의 여자에게 지어준 이름이다.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되리라”(창 3:20). 그 이전에는 어떤 어머니도 없었다. 모든 인류는 이브의 후손이다.

이브는 아담의 아내로서의 위치 뿐 아니라, 수많은 후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면에서 특별한 여성이다. 이브의 모든 후손은 하나같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하와는 무수한 아들과 딸을 낳았겠지만, 성경에는 세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 그리고 셋째는 셋이다.

어머니로서의 이브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었을 것이다. 아이를 낳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는 분명 이브에게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브는 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을 경험하는 어머니가 되었다. 한 아들은 살인자요 다른 아들은 피살자가 되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하였을 것

이다. 가인을 걱정하는 것만큼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아벨을 사랑한 만큼 상실감이 깊었을 것이다. 죄의 입구인 자신을 바라보면, 더욱 더 괴로움이 배가되었을 것이다. 자신이 시작한 범죄로 남편과 아들을 오염시켰고, 결국 형제살해의 비극을 맞으면서 어머니는 자책감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머니 이브에게는 소망이 있다. 모든 인간을 구할 구세주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온다는 소망이다. 이브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신 것을 보고, 크게 즐거워하였을 것이다. 셋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오는 후손으로

구원받게 될 새로운 날을 마음에 품게 된 것이다. 셋은 이브의 손자 에노스를 낳았다. 이제 사랑하는 손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겼다. 믿음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이다.

이브는 무엇보다도 아들의 이름을 짓는 어머니로 등장한다. 우리 말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창 4:25)는 두 개의 동사가 여성단수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이브를 주어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재번역할 수 있다. “이브가 아들을 낳고 이브가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즉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셋이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대신 주셨다”는 의미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면서 낮아졌지만, 소망 가운데서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으면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브는 영적 가문을 일으키는 현숙한 여인이다.

표어: "예수님이 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VIP INVITATION FESTIVAL

귀빈초청축제

존귀하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메/세/지

예배시간

주일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찬양예배, 오후 2시

주중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분

토요 새벽예배 토 오전 6시



오병익 담임목사

- Sung Kyul University (B.A.)
- Azusa Pacific University (English M.A. M.Div)
- Houston Graduate School of Theology (D.Min)
- 미주 장로신학대학교 교수 및 학생처장 역임
- 현재 남가주 벨엘교회 담임목사(미국 이민목회 30년)

강사 : 오병익 담임목사

일시 : 2016년 5월 22일(주일) 오전 11시

장소 : 남가주 벨엘교회 본당

남가주 벨엘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886-2562



김선규 부총회장(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교회는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목회와 교리' 주제로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개최



정창균 박사
©합신대

“교리 설교가 한국교회 문제의 해답이다.” 7일 대 한교회(담임 윤영민 목사)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31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합신대 정창균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교회 위기상황과 교리 설교의 회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리 설교’를 강조했다.

회가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지당하고도 필연적인 일”이라 주장했다.

다만 그는 “강단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리 설교를 기피해온 것이 현대설교의 경향인데, 사실 교리설교를 기피하지 않는 것이 교회성장을 위해서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면서 ▶ 성장제일주의 교회 행태 ▶ 따분, 지루, 추상적, 철학적, 실제적이지 않고 교인들에게 부담만 준다”는 교리 설교에 대한 오해 ▶ 교리 강도가 교회분열을 초래하며 일치·화합 장애물이 된다는 오해 ▶ 교리는 직접적인 성경말씀이 아니라 오해 ▶ (어려운 교리설교 말고) 쉬운 설교가 청중들에게 효과적이란 오해 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각 개인이 성경적 안목과 영적 분별력이 약화되어 이단의 가르침과 유혹에 대해 대응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개신교이기 때문에 교과 상관없이 모두가 고백하는 공통적인 신학적 진리(theological truth)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공통적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민 박사(대한교회 담임)도 “교회를 세우는 교리”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교리 교육이 즐겁고 유익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고히 세워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새신자로부터 기존성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부터 온 성도가 교육을 받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이단 사이버 공격에도 이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주일설교에는 교리적 가르침을, 수요예배는 개혁교회 전통 위에 있는 신앙 고백서를, 그리고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성경과 교리 교육을 교회 교육 시스템으로 구축, 계속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회와 교리’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두 사람의 발표 외에도 ‘설교 작성에 있어 비유 활용의 중요성과 방법’(박성환)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소고’(이우제) 등의 자유발표가 있었다.

정 박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힘 있게 선포되면 교회는 흥했고, 그렇지 않을 때 교회가 병들었으며, 병든 교회는 그 사회가 암흑의 시대로 접어드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하고, 현상학적 관점에서 한국교회 위기상황에 대해 ▶ 양적 성장의 쇠퇴 ▶ 도덕성 상실로 인한 사회적 불신 ▶ 사회와 타종교로부터의 반기독교적 압력 ▶ 이단에 대한 무방비 상태 등을 들었다.

특히 정 박사는 “사실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 현실을 놓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동안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결론짓고, “신자답게 살지 않고 교회답게 행동하지 않아서 벌어진 현상”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가 단순히 도덕수준이 높은 단체나 혹은 사회구호단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신자가 신자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반드시 도덕성이 뛰어나게 되고,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될 것”이라며 “도덕성이 뛰어나고 구제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 박사는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히브리 산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왕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휴머니스트들이어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 때문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17절, 21절)”이라 설명했다.

때문에 정 박사는 “이러한 신자의 정체성 준거들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얻게 된다”고 말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이와 같은 신학적 가르침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교리적 가르침”이라며 “교

아울러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는 일도 기도제목으로 정했다.

개회예배에서 ‘돌아오라’(속 1:1~6)를 제목으로 설교한 박무용 총회장은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라며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와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이후 ‘교회 생태계를 복원하라’(베드로전서 5:8-9)를 제목으로 저녁집회 강단에 오른 소강석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회 생태계와 환경 복원 △교회 개혁과 부흥운동의 전개 △다음 세대 준비를 꼽았다.

소 목사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개교회가 부흥하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도 교회의 생태계가 깨져 버리면 대형교회조차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원인으로 △교회의 성장·몰락 주의 △안티기독교의 공격을 들었다. 특히 후자에 대해 소 목사는 “한국교회도 잘못된 것이 있다. 바로 파도만 보고 그것을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반기독교 정서와 공격의 이면을 보고 연합해, 사상전과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했다”고 했다.

한편 교단 내에서 총회 다음으로 큰 연례 행사인 전국목사장로기도회는 지난 1964년 처음 시작됐다. 지금까지 전국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 교단의 현안들과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예장 합동의 대표적 기도회로 자리매김했다.

김진영기자

“대의와 총회 위해 자기 주장 거두는 믿음과 결단 필요”

예장 합동, 제5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개최...소강석·김남준 목사 등 강사로

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제5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회개와 회복-주여, 우리를 살리소서!’를 주제로 9~11일 의정부 광명교회(담임 최남수 목사)에서 약 2천 명의 교단 목사·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번 기도회는 첫날 박무용 총회장이 설교하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소강석 목사(새애넌교회 담임)가 강사로 서는 저녁집회, 이어 둘째 날 ‘100분 기도회’와 총 4번의 트랙강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윤복희 권사의 공연, 김남준 목사(열린교회 담임)의 저녁집회, 그리고 마지막 날 트랙강의와 김선규 부총회장이 설교하는 폐회예배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변질된 믿음과 교만, 돈과 권력을 쫓는 모습을 회개하고, 신실함과 사랑, 공의, 강단 및 선교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자 한다.

통조림, 생수, 설탕, 쌀, 식용유, 치약, 소금 등의 생필품 등 1만불 상당의 구호품을 현지에서 마련해 6일 지진의 진앙지 인근 마나베 주 페데르날레스의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페데르날레스는 에콰도르에서도 지진피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도시전체 건물의 85%가 파괴되고 4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 이재민들은 대부분 비닐이나 판자 등을 이용해 임시거처를 만들어 노숙하고 있으며 일부 이재민들은 구호품으로 지급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는 화장실 등 위생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지카 바이러스나 맹기

열,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에 처해있다. 이번 지진으로 280곳 이상의 학교가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12만명 가량의 학생들이 당면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 학교는 현재 방학 기간으로 보통 5월 1일부터 개학을 하지만 7월로 개학을 연기한 상태이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에콰도르 지진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현지 한인선교사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재민들을 위한 위생시설과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지진으로 파괴된 교회건물의 재건에도 힘을 예정”이라 전했다.

홍은혜 기자

“에콰도르 지진 현장에 도움의 손길 내민 한국교회”

한국교회봉사단 월드디아코니아...실사단 파견해 지진피해 이재민 돕기에 나서

한국교회봉사단 월드디아코니아(대표회장 김삼환, 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7.8 규모의 강진으로 2010년 아이티 지진 이후 중남미 지역에서 최악의 이재민이 발생한 에콰도르에 구호 및 실사단을 4일부터 9일까지 파견했다.

에콰도르는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몰차지원국이다.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교인은 1,200여 명이며 이중 한인선교사 가정은 모두 11가정이고 ‘에콰도르 한인선교사연합회’(회장: 남상태 선교사)를 구성하고 있다.

실사단은 현지 한인선교사연합회와 함께 모기약, 비타민, 해열진통제 등의 의약품과 화장지, 비누,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종합원
• 기독교대학(AB),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시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1407-46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ceu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과거 LA에서 열렸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세미나 기념 사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하나복 세미나 개최...5월 24일~26일까지 LA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하나복, 대표 김형국 목사)가 작년에 이어 LA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본강좌를 진행한다.

2012년 시작돼 제8회 짝을 맞는 이 세미나는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 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에서 5월 24일(화)~26(목)까지 2박 3일간 열린다. 회비는 교재비와 식사비를 포함해 100달러다.

하나복 세미나는 공개강좌, 본강좌, 그리고 심화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공개강좌를 다 들은 사람만이 본강좌를 신청할 수 있기에 이번 LA 본강좌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공개강좌를 들어놓아야 한다. 공개강좌는 하나복 웹사이트(www.hanabokdna.org)에 올려져 있는 영상으

로 진행되며 이를 마치고 숙제를 내면 본강좌 수강 자격이 주어진다. 공개강좌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며 본강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 훈련받는다.

심화강좌는 올 11월에 열릴 예정이며 이 심화강좌까지 마치면 하나복의 정식회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이 세미나 참석 대상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에 관심있는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 성도들이다.

▲문의 : 213-999-6214 / 이메일: daesongdoo@gmail.com



6일 저녁 6시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신학대학원 봄학기 졸업감사예배가 열렸다. 이날 설교는 “축복받은 사람”(요14:11~14) 주제로 케이 윌슨이 전했다. 졸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산, 김재호, 이성준, 윤해경, 정기용, 윤성필, 이하영, 박종성(무순).



지나해 처음 열렸던 비전케어 서비스 아트 콘테스트 수상자들.

“비전케어, 시력 중요함 전하는 아트 콘테스트”

시각장애인 돕기 위해... 최우수 당선작 500달러 장학금 지급

무료 개안수술 등 시각장애인을 돕고 있는 비전케어 서비스 미주서부지부가 오픈뱅크와 함께 제2회 비전케어 학생 아트 콘테스트를 연다. 이번 콘테스트의 주제는 “당신 마음 속의 빛(Light in your Heart)”이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참가할 수 있다.

비전케어는 지난 해부터 시력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이 대회를 열어 왔다. 최우수 당선작에는 5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

되고 수상작품들은 향후 비전케어의 다양한 홍보 물품에 사용된다.

공모전 참가비는 20달러인데 이 참가비는 전액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비로 사용된다. 7월 22일까지 우편 혹은 오픈뱅크 지점을 방문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다. 시상식은 8월 27일 오후 3시 오픈뱅크 올림픽 지점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vision-careusa.org나 전화 213-281-2617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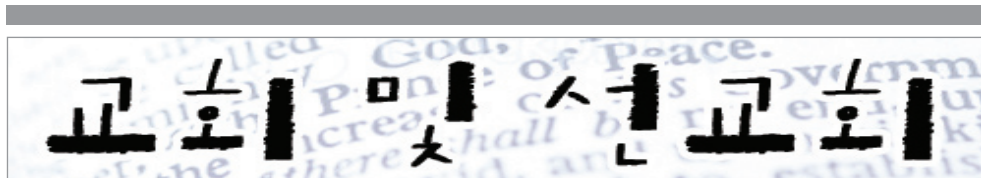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5월 14일(토) 오후 5시 30분

남가주사랑의교회 문화사역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제1회 부모 이웃 초청 콘서트를 연다.

5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남가주사랑의교회 KDC Hyssop Theater(190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에서 콘서트가 열리며 노래, 발레, 교전 무용, 가야금, 크로마 하프 등 다양한 공연

이 있다. 입장은 무료이지만 좌석이 제한되어 예약이 필요하며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문화사역원은 “아름다운 5월에 우리 부모님과 이웃들을 초청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초대했다.

▲문의: 윤원오 집사(213-300-7131)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새벽-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에게서 이단(2세)을 제외하며, 이단(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역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연제선 담임목사</p> <p>LA 온하늘교회</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회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p> <p>한기형 담임목사</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8: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방토 오전 9:30-12:30 환어청년부 오후 1:30 아미아기도모임 수요일 10:30</p> <p>서건우 담임목사</p> <p>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환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8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김문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 (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us</p>
<p>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p> <p>조인수 담임목사</p> <p>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음 모임 오전 11:00</p> <p>김영구 담임목사</p> <p>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화/목/토/일) T.(213)380-0071</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p> <p>요한 선교교회</p> <p>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친. 초. 장. 신의 흠뻑. 바른. 교회관의 흠뻑</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곽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은혜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p> <p>Bryan Kim D.M.D.</p> <p>김범수 치과</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용 목사</p> <p>오늘 성경 읽으셨나요?</p> <p>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침례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찬양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등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행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국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침례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침례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블리제펠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침례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LA 예배터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수요(영성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89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美 현대인들의 안식일 준수 의미”

유고브 1,691명 상대 설문조사 ... 응답자 50%만이 중요하다고 답해

“안식일이 종교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미국인들이 1978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고브(YouGov)가 데레셋뉴스(Dereset News)를 통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안식일이 종교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고브는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1,691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천분율로 나눴을 때 표본오차는 ±3.1이었다.

데레셋뉴스는 ‘미국 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고찰’(Sabbath Day Observance in the U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추세는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종교적 안식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 것은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밀레니얼 세대 중 41%만이 주일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X세대의 51%, 베이비붐 세대의 56%, 조용한 세대(1920~1940년대 태생)의 58%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밀레니얼들은 주일예배 출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 중 주일예배에 출석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2%였으며, 18%는 주일에도 일을 했다.

데레셋뉴스의 켈시 텔러스는 “예수그리스도말일성도교회 교인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안식일을 더욱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녀는 “물론교인들의 28%가 목상 등 종교 활동에 평균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40%가 교회 출석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였다.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경우 응답자의 15%가 평균보다 자주 교회에 나가거나 성경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안식일에 집 안팎에서 일을 하거나 스포츠나 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도 적었다”고 했다.

안식일 준수와 인식에 대한 이 보고서는 현대 미국사회가 10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관찰한 ‘10 시리즈’(Ten Series) 중 하나다.

텔러스는 “새로운 연구 결과, 현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종교적인 의미보다 휴식이나 잔업을 하는 날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오늘날 미국 성인들의 7명 이상(73%)이 안식일에 쉰다고 답했다. 이는 1978년도의 63%에 비하면 더 늘어난 것이다.

쇼핑을 한다는 응답자는 30%였다. 이는 40년 동안 거의 11%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해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는 작년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한 칼럼에서 “예수님이나 사도 모두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6~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하신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우리 신앙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다 이루었다’이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다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직원들...보수적 뉴스들 자체 검열 주장”

페이스북의 ‘트렌드 뉴스’ 분야에서 일하던 한 기자가 8일 “페이스북이 보수적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들을 정기적으로 걸러 왔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그는 IT 전문매체 기즈모(Gizmodo)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직원들은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미트 롬니 전 주지사,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의 뉴스를 최상단에 보이지 않도록 했다. 심지어 이들의 뉴스가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을 때도 그랬다”고 주장하며 폭로했다.

그는 “누가 이슈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되거나 트렌드 뉴스가 됐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면서 “관리자들이 보수적인 이슈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테드 크루즈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CPAC나 미트 롬니, 글렌 벡 또는 대중적·보수적인 이슈들이 트렌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페이스북 뉴스 관리자들도 기즈모와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지시를 받아 트렌드 뉴스에 선택된 기사들을 끼워넣었다”고 했다.

페이스북은 그러나 “전 세계 16억 사용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드 뉴스가 됐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면서 “관리자들이 보수적인 이슈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테드 크루즈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CPAC나 미트 롬니, 글렌 벡 또는 대중적·보수적인 이슈들이 트렌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페이스북 뉴스 관리자들도 기즈모와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지시를 받아 트렌드 뉴스에 선택된 기사들을 끼워넣었다”고 했다.

페이스북은 그러나 “전 세계 16억 사용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힌두 극단주의자, 인도 자바트 교회 공격”

인도인민당 깃발 보고 격분 ... 아리엘 목사 '경찰은 방관만 해'

인도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자바트에 위치한 개신교회가 힌두 극단주의자들 500여 명의 공격을 받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교회 출입문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근본주의자들은 교회 외부에 걸려 있던 인도인민당(바라티야자나타: 힌두 내셔널리즘)을 표방하는 인도 여당의 상징인 짙은 황색의 깃발을 발견한 후 격분하여 이를 훼손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교인들에게 돌을 던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지역의 미나 초한(Meena Chauhan) 경찰서장은 “당국은 이에 즉각 경찰차를 동원해 체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마누엘 아리엘 목사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는 “깃발들은 바람 때문에 훼손된 것이다. 경찰은 옆에서 공격을 지켜보지만 했다”고 말했다.

힌두교 우익단체인 국가봉사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 RSS) 활동가들, 인도국민당(BJP), 힌두교 보수주의 단체인 ‘바즈랑 달’(Bajrand Dal)은 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교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여성들을 공격했다. 교회의 전등도 부숴졌다”고 설명했다.

아리엘 목사는 “모든 일들이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다. 그들은 조용한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는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힌두교인들의 박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박해들 가운데 최근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이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명의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 목사와 사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다.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목사와 사모는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교회는 화재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 성경, 강대상, 가구, 음향 설비를 비롯해 기증받은 많은 물건들이 훼손됐다.

당시 국제기독교연대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총재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소수종교인들을 표적으로 한 모든 공격을 규탄한다. 이는 인도 시민사회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인도기독교인위원회(The Global Council of Indian Christians)의 사잔 K. 조지(Sajan K. Georgo) 회장 역시 “최근 발생한 사건은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인도에서 종교적인 관용과 신앙(예배)의 자유는 악화되고, 박해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알라에게 영광을’이라는 문구가 적힌 런던 시내버스. ©이슬라믹릴리프 페이스북.

“알라에게 영광을?”

영대도시 5곳에서...시내버스 수백대에 광고 부착

영국 대도시 5곳의 빨간 2층 버스 수백 대에 알라를 찬양하는 광고를 선보인다고 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7일 런던에서 최초로 무슬림 시장이 탄생한 가운데, 영국에서는 오는 23일부터 버스 640대에 알라를 찬양하는 광고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는 영국 최대 규모의 무슬림 자선단체 ‘이슬라믹 릴리프(Islamic Relief)’가 시리아 내전 희생자 지원을 위해 벌이는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슬라믹 릴리프는 “아랍어로 ‘알라에게 영광을(Subhan Allah)’이란 글귀를 담은 버스 광고가, 이슬람과 국제 구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슬람법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소득의 2.5%를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

게 되어 있는데, 이를 ‘자카트’라고 한다. 이는 이슬람교의 5개 교리 중 하나이며, 금식기간인 ‘라마단’에 자카트를 행하고 있다.

한편 사디크 칸(Sadiq Khan) 신임 런던시장은 지난 5일 치른 선거에서 약 57%인 130만 표를 얻어 보수당 자크 골드스미스 후보를 꺾었다. 그는 파키스탄 버스기사 출신 아버지를 둔,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인권 변호사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모든 런던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런던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가장 투명하고 부지런하며 소통하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와 우리 가족이 얻었던 기회를 모든 런던 시민들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예수님과 닮은 모습 되고자”

故한총렬 목사...중국복음화와 조선의 어려움 함께한 진정한 목회자

지난달 30일 북중 접경에서 피살당한 한총렬 목사(장백교회)의 영결식을 마치고 교회와 유가족들이 “예수님과 닮은 모습 되고자”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회와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故 한총렬 목사는 중국의 복음화와 조선 민족의 어려움에 함께한 진정한 목자”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서 왔으며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자 노력했다”면서 “교회 안팎의 어르신들을 늘 부모님처럼 모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자 애쓰며 살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 목사에게) 1988년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섰었지만 이는 장백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그 전까지 오직 공부만 알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그 아픔과 절망을 겪게 된 오직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는 목회의 준비과정”이라며 “1993년 장백교회를 세우고 책임 집사를 맡은 이후 2016년 600여 명의 교인들과 50여 처소 교회를 섬기는 큰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에 충실하게 답하며 몸으로 실천했던 삶의 결과였다”고 했다.

교회와 유가족들은 “1997년 조선의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조선 백성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중국 땅을 밟을 때도 이들의 아픔에 함께 하며 오직 저들의 희망이 되어주고자 노력했던 것은 그 실천의 확장”이라 말했다.

또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전파인데 한총렬 목사는 이 사명에 가장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면서 “조선 주민들의 일시적 국경 이탈을 통해 중국의 교회들을 방문해 먹을 것을 구할 때 육신의 양식 뿐 아니라 복음을 제공한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북천 한총렬 목사 기념회’도 만들어진다. 기념회 초대 창립위원장은 상지대 이용호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한 목사가) 비록 그토록 소망하던 남북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보지 못하고 떠났지만 한 목사가 추구하고 지향했던 중국과 민족복음화를 우리 모두가 계승해 나가기를 원한다”면서 “이에 장 목사가 늘 좋아했던 북천(福泉)을 아호로 삼아 북천기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장백교회의 사역과 북방지역 민족 복음화를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홍은혜 기자

“시티하비스트교회...교인 7천여 명 감소”



공히 목사 시티하비스트교회 담임

싱가포르의 대형교회인 시티하비스트교회(City Harvest Church)가 최근 27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 교회는 설립자인 공히(Kong Hee) 목사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 중으로, 교인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인 선데이타임스는 시티하비스트교회 교인 수가 작년 16,48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2014년에 비해 6% 줄어든 것이다.

선데이타임스는 2010년 공히 목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 교회 교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교인 수는 23,565명으로, 현재는 당시보다 약 1/3 줄어든 것이다.

공히 목사를 비롯해 시티하비스트교

회 재직 6명은 작년에 현금 3,500만 싱가포르달러(약 300억 원)를 유용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공히 목사의 아내이자 가수인 호선의 경력을 위해 그녀의 CD 앨범을 구매하고, 음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공히 목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역시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태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히 목사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설교 집회와 치유 기도회를 열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시티하비스트교회 구제팀을 파견해 돕기도 했다.

일부 교인들은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분쟁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진행 중인 인도주의적 사역들에 대해 언급했다. 시민 봉사자인 칸 콕 시양은 “출석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해 슬직해지자”고 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A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한글) 토 9:30AM-10:00PM
대형한부E-college 주일 2:00PM NEX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지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집아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름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전집아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원/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562)691-0691/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cg.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C.(714)308-7038/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찬양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6:20
토요일 새벽 찬양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예프리스쿨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유·초·중·고·대학부 오후 2:00

얼바인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유·초·중·고 오후 1: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예)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중·고등부 오전 11:30 영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배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신앙의 불모지 중국 베이징... 그곳에도 '복음'은 있다

세계 문화 유산의 도시 베이징(北京) 출석성도 6천 명 규모의 총원문교회 주일 오후에는 조선어로 설교해 빌리 그레함 등도 설교해

◆우리나라보다 오래 된 중국의 기독교 역사

김수진 박사(한국교회역사연구원 원장)가 저술한 「중국개신교회사(홍성사)」에 따르면, 중국 기독교(개신교) 역사는 1807년 9월 런던선교회 소속 모리슨(Robert Morrison, 馬禮遜, 1782-1834) 선교사가 광저우에 입국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중국 기독교 역사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모리슨 선교사의 입국 이후 1860년 청나라가 영국·프랑스·러시아 3개국과 체결한 '베이징 조약' 체결까지로, '선교 준비기'라 할 수 있다.

이 1기는 1842년 아편전쟁 종결을 위해 영국과 체결한 '난징(南京) 조약'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전기에는 동남아를 근거지로 삼고 중국 선교를 준비했고, 후기에는 난징조약 이후 개항된 상하이(上海) 등 5개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이 시기는 청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으면서 쇠퇴하던 때다. 바로 베이징조약 체결을 통해 '선교의 자유'가 인정됐다. 제1기 끝 무렵은 유럽 지역에서 '선교'가 활발했던 때였던 만큼 중국에 교회를 설치했던 선교회가 22개, 선교사 수도 150여 명에 달했지만, 중국인 교인 수는 35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제2기는 1860년부터 1900년 '의화단운동(義和團運動)'까지를 이르며, '교회 건설의 시기'로 불린다.

구미 열강이 청나라를 점점 압박했던 것과 동시에, 만주족에게 점령당한 한족(漢族)들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근대화 바람이 불기도 했다. 그러나 천주교회에 대한 반기독교 운동도 거셌는데, 중국인들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를 같은 곳으로 보기 때문에 의화단운동 당시 135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박해와 환란을 통해 기독교는 오히려 성장한다.

제3기는 1900년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까지 이르는 '교세 확장의 시기'로, 세례를 받은 신자 수만 1900년 112,808명, 1912년 235,303명, 1920년 366,524명에 달했다. 세례를 받고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출석한 사람까지 합하면, 1915년 526,108명, 1920년 806,926명이 나왔다.

이 시기 중국교회에는 선교회 50여 곳이 활동하고 있었기에, 부흥운동과 함께 교파 간 협력·연합운동이 활발했다. 또 이 시기에는 제2기에 많이 세워진 '미션스쿨'의 교육 결과 중국인 지도자들이 급부상했고, 해외 선교회들의 지배와 보호에서 벗어나 자립하고 자주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1922~1927년에는 '기독교 중국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 일환으로 1922년 여러 교파들은 연합하여 '중화기독교교회(The Church of Christ of China)'를 설립하고, 현 삼자교회(三自)의 모토인 '자치(自治)·자양(自養)·자전(自傳)'을



총원문교회 건물 모습. 작아 보이지만 2천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내세웠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제국주의·군벌 세력을 타도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자는 국민혁명이 주창한 '반기독교 운동' 여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예수 가정(Family of Jesus)'이나 위치만 니(倪柝聲)의 '소그룹(教會聚會所)' 등 독자 노선도 출범했다.

제4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공산주의 국가로서 교회 조직을 만든 시기다. 삼자운동 조직이 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돼 현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로 이어졌다.

이를 거부하는 이들은 '가정교회'로 명맥을 이어 오다 개방화 이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베이징의 '대형교회', 총원문교회

베이징 도심에 자리한 총원문(崇文)교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46년 전인 1870년, 미국 남감리교 출신인 애즈베리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됐다.

1900년 반외세를 표방한 의화단운동 때 불에 탔으나 1904년 재건됐고, 현재는 유적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총원문교회는 '화북 지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기도 하다.

총원문교회는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6천여 명에 달해, 하루 세 차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후엔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조선어 예배'를 드린다.

베이징 주재 외국 대사과 직원들을 비롯해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한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설교한 적도 있고, 1998년에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 부부가 중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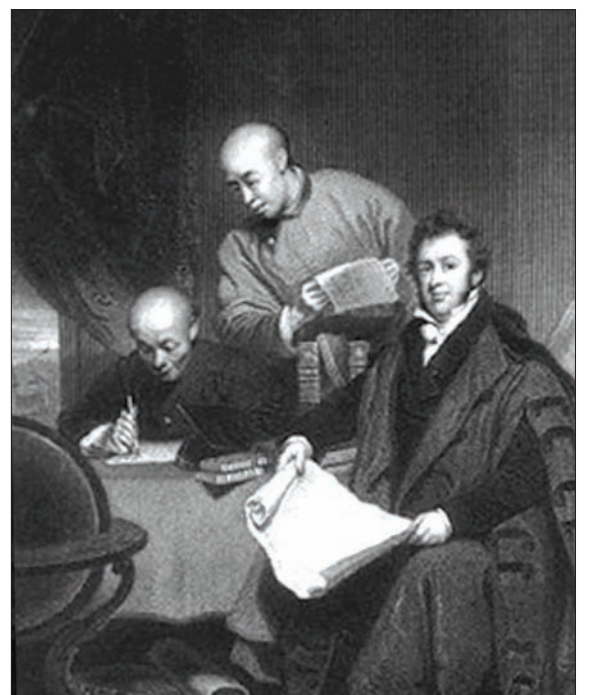
중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기도 했다.

현지 조선족 유덕 목사 따르면, 현재 중국인들은 영혼에 '갈급함'이 많은 상태여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유덕 목사는

"조선족의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성도 수가 7-8백 명에 이르렀지만, 한국 등으로 이주하거나 집값 등의 문제로 베이징 근교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150여 명 정도 출석하고 있다"며 "조선어 예배를



중국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과 중국인 동역자들.

주일 오후에 드리고, 현재 교역자는 저까지 3명이다. 조선어 예배는 한국 한 장로님 부부의 지원을 통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대웅 기자



외부에서 바라본 총원문교회 입구. 보이는 입구는 담장 역할을 하고, 들어가면 내부 건물이 나온다.



마라바타극과 장의자 등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총원문교회 수요일 성경공부 모습. 주일에는 왼쪽 가림막을 걷는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봄학기 학생모집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p>모집 부문</p>	<p>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p> <p>신학 대학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p>
	<p>일반 대학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p>
	<p>홈스쿨링</p> <p>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small>*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small></p>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 IVY교육칼럼(2)

편입(또다른 기회)

현재 재학중인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는 절차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대학의 편입은 한국처럼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다. 고등학교 때 사정상 원하는 대학 진학이 어려웠던 학생이 편입을 고려한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편입을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더 좋은 대학을 원하거나 원하는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특히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중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정문제 때문이거나 원하는 대학 입학에 실패해 고교 졸업 후 커뮤니티 칼리지 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이다.

편입생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선 편입하려는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 편입하기로 목적을 세웠다면 다음은 편입시기이다. 일반적으로 3학년으로 편입하지만 2학년으로의 편입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4학년 편입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편입을 결정했다면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편입 관련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신입생으로 지원했다가 입학을 거절당한 대학에 편입하길 원한다면 최소 3학기 정도는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편입도 신입생으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입을 희망하는 대학을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편입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학을 선택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학생이 거주하는

주의 주립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다. UC계열의 경우 대부분 대학들의 편입 합격률이 신입생 합격률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의 또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미국 교육 시스템의 장점이다.

편입생으로 지원하는 절차 역시 신입생으로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학에서는 편입하려는 학생의 동기를 중요시 한다. 모든 편입 희망자는 개개인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입학원서 마감일을 철저히 지키고 대학 교수 등 관계자들로부터 일찍 추천서를 부탁하는 것도 명심하자.

대학마다 학점 인정에 차이가 있으니 편입되는 학교로 지원할 때 학점을 어떻게 인정해 주는 지를 미리 알아봐야 한다.

또한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점을 수강할 때 편입하려는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과목인지도 알아봐야 한다. 편입이 되었는데 학점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1년을 더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들이 공통지원서에 편입지원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들은 자체 편입지원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학원서도 알보기를 바란다.

공통지원서 내 편입지원서에는



권셀비 디렉터
아이비 유학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1. College Official's Form: 재학중인 대학에서의 학업기록을 볼 수 있는 행정직원이 작성하는 양식이다.
2. Instructor Evaluation: 교수가 작성하는 추천서 양식이다.
3. Mid-Term Report: 수강중인 강의의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작성하는 서류로 학생의 성적과 강좌내 퍼포먼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
4. School Report: 출신 고등학교 교장이나 카운슬러가 작성한다.

편입 역시 입학사정에서 학업성적이 가장 중요시 된다. 일부 대학들은 대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얻을 경우 지원자의 고등학교 성적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편입에도 추천서, 에세이, 인터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편입지원자에게 두 장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대학 학장, 교수, 전임강사 등이 좋은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름방학 전에 미리 추천서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에세이는 왜 편입을 원하며 편입을 통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정직하고 긍정적으로 써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인터뷰를 제안하는데 만약 인터뷰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지원할 때 의무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별 요구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미리 전문가와 실전 연습을 통해 충분히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편입의 조건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계획성 있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다른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 교회 부동산 칼럼(3)

교회 장소 1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는 '에클레시아'(Ekklesia)로 이는 '.....으로부터'라는 '에크'(εκ)와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클레시아'(κλησια)가 합쳐진 말이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



Mark Kim 대표
Max Capital Group, Inc

나눔께로부터 부름 받아 모인 무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회가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시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는 모임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 교회 모임 장소를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둘째, 부동산을 렌트 하는 것, 셋째, 다른 교회와 시설(Facility)을 나눠 쓰는 것이다.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의 교회 부동산 구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교회 부동산 거래는 주택 구입처럼 간단하지 않고 많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용 부동산 에이전트 및 브로커는 교회 사용을 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교회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교회 사용에 대한 부동산 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정보는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상식이나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계획으로의 교회적인 합의이다. 그리고 지역을 결정할 후 재정예산의 한계를 결정

해야 한다. 일단 교회적인 합의와 예산이 결정되면 필요한 시설과 면적을 결정한 후에 부동산 구입을 도울 외부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 팀의 구성원으로는 첫째, 경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 부동산 전문 브로커 회사나 에이전트이다. 둘째, 교회 건축 설계자, 셋째, 교회 부동산 운자 상담자, 넷째, 시의 Planning Department 직원과 Building Department 직원이다.

많은 경우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인 토론으로 인하여 시간, 노력, 재정 등을 낭비할 수도 있다. 이런 외부 팀 구성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간, 노력과 재정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교회에 적합한 부동산을 찾는 것이다. 일단 찾으면 오피를 하여야 하는데, 오피를 할 때는 반드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자세한 조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을 Contingency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감정가, 인스펙션 결과, 시 허가 등이다. 이런 자세한 오피를 위해서 반드시 전문적인 부동산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중에도 교회 건축 준비팀 뿐 아니라 구성된 외부 전문가 팀과의 상담을 통해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방해가 없게 해야 예정된 시간에 입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조성노 칼럼

사랑과 감사의 계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한국 기준) ... 왜 5월에는 이렇듯 사랑과 감사의 날들이 잔뜩 몰려 있을까?

5월이야말로 1년 중 가장 싱그럽고 아름답고 화사한 계절이므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 보라는 뜻이 아닐까?

미국의 여류 저술가요 사회 사업가였던 헬렌 켈러(Helen Keller, 1880-1968)는 원래 인형처럼 예쁜 아기로 태어났다. 그러나 생후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으로 눈과 귀가 다 멀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은 말도 못하는 병어리가 되었다. 그런 그녀가 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한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Three days to see)>이란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만약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는 첫째 날, 늘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빛나게 해 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느꼈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내 마음 속 깊이에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웅장한 자연의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



조성노 목사
푸른교회

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태고적부터 살아온 인류의 궤적을 제 눈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보석 같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

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으로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된 온갖 아름다운 물건들을 구경하며 집으로 돌아와 나를 지난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친 후 다시 저만의 암흑의 세계로 돌아 갈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자 했던 세계가 우리에게는 일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두 눈으로 아름다운 꽃들과 나날이 짙어가는 신록들을 보고, 두 귀로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한

다. 또 남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다. 헬렌은 이렇게 말한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저 새들의 지저귀음을 들어 보십시오.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이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이가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삶, 내일이면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는 이 순간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더욱 겸허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모님께, 선생님께, 이웃들께 깊이 감사하는 5월이 되었으면 한다.

미주 제 59차 성경완독집회
2016년 6월 13일(월)~16일(목)

3박 4일

성경 66권 완독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 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니다.
성경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삽시다”

강사 안성기 목사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강사 김동진 목사
한국요한선교단 대표

강사 임현영 선교사
우크라이나 선교사

강사 이회철 목사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강사 김동원 목사
헬리웃효순장로교회 담임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 : (213)268-3589

1101 S. Elden Ave., L. A., CA 90006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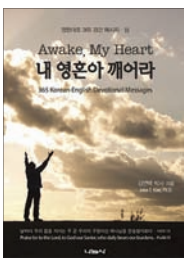


신간 추천

내 영혼아 깨어라

김연택 | 나눔사 | 401쪽

이 책은 말씀의 주요 내용의 기본적인 성경교리,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 교회 전도와 부흥, 성도의 헌신과 봉사의 삶, 가정과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세계선교 등을 다루고 있다. 성경말씀 중심, 성도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성경적 교훈, 교회성장과 부흥에 유익한 메시지와 복음전도의 성경적인 방법과 세계선교에 대한 도전 등을 담고 있다.



한국교회와 신학

윤사무엘 | 쿰란출판사 | 464쪽

한국교회가 서구 기독교 선교를 받은 지 130년이 지났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 앞에 한국적 신학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양육을 받다가 해외에서 30여 년동안 생활하고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온 저자는 해외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그 고민과 함께 그에 대한 견해를 나눈 논제들을 이 책을 통해 정리했다.



삶이 말하게 하라

서영은, 임연심 | 열림원 | 3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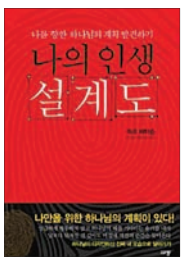
이 책은 여의도순복음교회 1호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어 28년간 투르카나 고아들의 엄마로서 그 땅에서 헌신의 삶을 살다가, 지난 2012년 8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임연심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임 선교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어 임 선교사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나의 인생 설계도

배응준 | 규장 | 248쪽

어쩌면 우리의 내면에는 이 시대와 세상이 심어준 대단한 사람의 기준이 있을지도 모른다. 가끔은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조건을 갖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안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전도서 묵상과 인간의 존재와 역사에 관한 성찰”

엘릴, 40년 전도서 묵상에서 참된 지혜를 만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현대의 질문과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전도서의 질문 간의 모순은 ‘무엇에’를 ‘누구에게’로 바꾸면 해소된다. 누구에게 그 소용이 있는가? 이는 전도서의 본문들이 주는 교훈이다.

우선적인 관심이 ‘누구’라는 인간에게 있다. ‘누구’라는 인격, 행위자, 살아있는 존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전도서는 ‘무엇’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것은 종립적인 것으로 사물이고 기구이고 소유물이고 수단으로서 인간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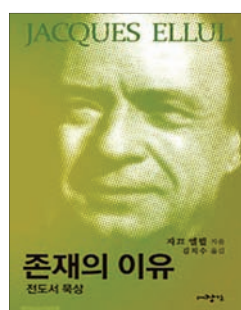
전도서는 우리의 질문들의 중심을 어긋나게 한다. 왜냐하면 깊

은 성찰을 통해서 전도자가 한 것이 바로 이 질문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의 전환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전도서의 메시지가 임한다. 네가 너 자신을 창조주로 착각할 때마다, 너는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존재가 된다.

반면에 인간이 침묵과 신중함과 겸손 속에서 은밀히 일하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행한 일은 다 긍정적이고 유익하고 활력을 준다. 인간이 자신을 창조주로 착각하여 권력으로 행한 일은 다 공허감을 불러일으키는 허무한 일이다.

여기서 전도자는 가차 없이 급진적으로 선언한다.



존재의 이유
자크엘릴
대장간 | 400쪽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헛된 것이고 연기와 안개와 구름 같은 것이다. 덧없고 유사(流砂)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말씀이 존재한다. 모든 인간의 존재는 이 말씀에 귀착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서 떠나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그는 아벨이다. 여기에 더도 없고 덜도 없고 절충도 없다.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진리와 실재를 부여하는 것은, 돌연히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이다. 그것이 인간의 전부이다.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전도서 12:13 새번역>

자크 엘릴은 이 책의 저술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도서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것은 극히 무분별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학자도 주석가도 해석학자도 신학자도 아니다. 내가 여기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단지 전도서를 반세기가 넘게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 왔다는 사실뿐이다. 내가 그토록 깊이 파고들고 또 그만큼 수확을 얻었던 성서 텍스트는 아마도 전도서가 유일할 것이다. 전도서만큼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네준 책은 없었다.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대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인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전문점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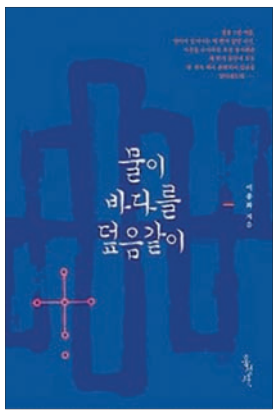
[북스 리뷰]

“가장 좋은 문서선교…기독교소설의 부흥을 꿈꾸며”

기독교 소설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일반 소설보다 문학성이나 문장력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대표적이다. 기독교 출판시장에서 문학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은 데는 이런 선입견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나친 엄숙주의로 경건하지 않다고 여기는(결코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 문학에 대한 홀대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나니아 연대기」나 「벤허」, 「천로역정」 같은 소설이 나올 수 없다고 본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천로역정」이 나왔다면 지금처럼 고전이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사장(死藏)됐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홍성사에서 나온 (기독교) 역사 추리소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는 첫 장에서부터 살인사건으로 시작하여 시선을 잡아 끈다. 연속 두 차례 더 이어지는 살인사건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일으켜 팽팽한 긴장감을 갖게 한다. 살인사건을 파헤치면서 밝혀지는 내막은 끝까지 책을 넘기게 한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놀라웠던 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종화
홍성사 | 296쪽

은, 쓰이는 옛말과 문장 구사력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매끄럽다는 데 있다. 이 옛말이라는 것이, 알고 있다 해도 아무렇게 쓰거나 억지로 넣으려 하면 '아귀가 맞지 않는 구'처럼 뒤틀리게 돼 있다. 읽는 이가 옛말의 뜻을 모른다 해도, '어색하다'는 느낌을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는 많은 옛말이 들어갔음에도, 어느 하나 허투루 쓰이거나 맞지 않는 게 없었다. 이 책을 몇 페이지 읽으면서, '이 책은 다시 읽어야겠다', '옛글을 배우

는데 좋은 지침서가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 면에 있어 일반 소설과 견주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또 이 소설은 자료 조사를 많이 했다. 조선 경종 때의 일을 바탕으로 허구적 사건을 가미한 소설이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 전개는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마련인 만큼, 많은 조사를 한 티가 역력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여러 소설과 영화가 떠오른다. 추리 기법으로 이야기를 펼쳐는 과정은 이정명의 「뿌리 깊은 나무」, 「서경」의 오형(五刑)의 방법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은 김대승 감독의 영화 「혈의 누」와 유사하다.

또 옛말을 많이 사용하고, 중간에 상인들이 물건을 팔면서 외치는 가락(43-44쪽) 장면은 김주영의 소설 「객주」에서 보부상들이 저차 거리에서 외치는 가락(여러 번 등장하지만 특히 1권 165-168쪽)과 아주 흡사하다(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김주영의 「객주」가 자주 떠올랐다. 그만큼 잘 썼다). 유교 문화가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스토리는, 한자를 우리나라 동족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김진

명의 소설 「글자 전쟁」과도 연관 짓게 된다.

소설 끝부분 '작가의 말'에서, 작가는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고, 이것이 자신의 첫 소설이라고 했다. 분명 이 소설에는 3년이란 시간이 걸렸을 법할 정도의 노력이 보였다. 하지만 작가의 말대로 '첫 소설'이라는 점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초반에 시선을 끈 「서경」의 오형(五刑)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에서, 세 가지 방법의 살인사건이 나온 후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나오지도 않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도 없다.

또 보통 소설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소설은 발단부터 위기까지 숨가쁘게 치달으면서 독자와 싸우려 하다, 절정에 와서 갑자기 "내가 잘못했어!" 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결말에서는 뒤돌아서서 "나 같게!" 하는 듯 조금 심하게 마무리된다.

필자는 그것이 작가의 잘못보다는 '기독교 소설의 제약' 때문이라고 본다.

이 소설을 중간까지 읽으면서, '몇 권으로 나올 법한 주제와 내용인데 이를 과연 한 권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한국 기독교 소설시장에서 대하소설처럼 2권 이상 나와서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부러 급히 마무리짓지 않았나 싶다.

끝으로, 제목이 아쉽다. '기독교 소설'은 어찌했건 주제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지만, 제목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지나치게 종교성을 띤다는 건 긴장감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화살'이나 '유교의 기원' 같은,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제목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이런 몇 가지 단점에도, 이 책은 근래 읽은 기독교 소설 중에서 문장력이나 구성이 가장 치밀하고 우수했다. 서두에서 밝힌 대로 이 책은 옛말을 공부하기에도 좋고, 일반 소설과 견주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문학성을 지녔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기독교 소설'의 부흥을 꿈꿔 왔다. 일반인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장 좋은 문서선교 장르는 '소설'이라고 본다. 대중화된 기독교 소설이 '문서선교'의 선봉장이 되어 일반인들에게 이질감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소설 작가들도 많이 등장하여 기독교 출판시장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그런 날을 꿈꾼다. 그런 부흥의 책장에 이 소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도 꼭 진열될 것이다.

이성구 부장
순전하나드출판사

[인문고전 읽기]

“역사 속 ‘사상’의 역할”

750여 쪽에 이르는 이 저작을 해독하는 키워드는 유럽의 근현대사에 있어 “항구적으로 제기된 물음들”이다. 즉 그것은 신, 자연, 인간, 사회, 역사라는 다섯 가지 주제다. 그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서에서 보며 교수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유럽 사상의 흐름을 ‘존재(being)’로부터 ‘생성(becoming)’으로 점차 변화한 과정으로 이해한다(9쪽). 즉 “고정적이라든지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인식의 틀에서부터 “새롭고 상이한 어떤 것”으로 영원히 발전해 나간다는 쪽으로 사고의 틀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17세기 뉴턴의 자연관에서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 요소로 생각됐지만, 20세기 아인슈타인에 이르러서 절대공간이나 절대시간이란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됐다. 저자의 관점에 의하면 17세기는 존재가 생성보다 우위인 시대요, 18세기는 존재와 생성이 병존하는 시대이며, 19세기는 생성이 존재보다 우위에 선 시기이다. 그리고 20세기는 생성이 존재에 대해 승리를 거둔 시기이다.

둘째로 본서는 사상의 박물관이



유럽 근현대 지성사
프랭클린 보머
현대지성 | 760쪽

라 할 만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근현대 사상사에 영향을 끼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중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프리드리히 니체, 찰스 다윈, 르네 데카르트,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버트렌드 러셀,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칼 마르크스, 샤를 몽테스키외, 존 스튜어트 밀, 프랜시스 베이컨, 볼테르, 장 폴 사르트르, 스피노자, 칸트, 콩트, 파스칼, 그리고 프로이트의 이름이 들어 있다.

이 책은 이미 언급한 다섯 가지

큰 주제(물음)에 따라 구성되어, 합리주의, 계몽주의, 과학혁명, 낭만주의, 실증주의, 역사주의, 유물론, 이신론, 자유주의, 그리고 회의주의 등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상들이 파노라마처럼 우리 앞에서 펼쳐지므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독자는 헛기증을 느낄 만하다. 하지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읽는 독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인간은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존재(723쪽)”로서, 그의 본성과 운명, 신과 자연 등에 관한 본질적이고 항구적인 질문들을 끊임 없이 던진다. 저자에 의하면 지성사는 과거야말로 이 “중대한 질문들에 대한 풍요로운 사상의 원천”이라고 본다(725쪽).

“역사란 인물과 환경과의 만남의 기록(도널드 크레이턴)”이란 말이 있다. 저자에 의하면 모든 사상은 특정 환경에서 생겨나고, 어떤 역사적 순간의 영감(靈感)의 산물이며, 개인이나 집단이 독특한 형태의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생겨난다. 즉 그러한 사상이 처음 생겨난 것은 대체로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거나 역사상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에 의하면, 지성사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다. 모든 사상은 그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성은 그 사상이 생겨나게 된 배경뿐 아니라, 그 사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지성사는 그 사상이 형성된 ‘원초적 경험’ 속으로 진입하여 본래 모습대로 그 사상을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진리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믿음이다.

끝으로 독자들은 이 책에서 적지 않은 기독교 변증가와 신학자 또는 과학자들이 유럽 사상사에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이름은 ‘기독교 변증가’ 반열에 들어 있는 블레즈 파스칼(Braise Pascal)이다. 저자에 따르면, 무한한 자연 가운데 상실감을 느낀 파스칼에게 있어 ‘인간의 불균형’은 그의 위대한 사고

의 주제였다. ‘자연의 무한성 가운데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파스칼은 묻는다. 저자에 의하면 “파스칼은 종교사상이며 동시에 위대한 과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 계시 속에서만 확실성과 안정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86쪽)”.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비참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인간의 비참함은 파스칼의 이런 신념을 위한, 그리고 기독교 변증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121쪽)”. 원죄는 그의 인간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각별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본서는 철저히 1차 자료(원자료)에 기반을 두면서, 역사 속에서 사상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20세기 사상을 설명하는 부분은 이 책의 백미(白眉)라 할 만하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진도에 날개를 달아라

이을재 목사 (보장한신교회)
소강석 목사 (새아침교회)
전병금 목사 (강남교회)
정경동 목사 (대전중문교회)
주성민 목사 (세계로 금관교회)

추천!!!

진도는 은사 받은 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의 전도서다.
한신교회 5년 연속 전도왕, 교단 2회 우수상, 20여 교회 전도집회 인도 등 전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귀족상 정로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전도 내배게이션과 같다.

곽준상 지음 | 278면 | 13,000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는 내리고

삼대지 설교본 아니라 4페이지 설교, 이야기 설교, 분석 설교 등 다양한 설교 구성 방법을 본문에 맞게 적용해온 저자에게 설교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내용이나 구성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청주금천교회 김진홍 목사의 10번째 설교집.

김진홍 지음 | 384면 | 13,000원

아빠! 여깁새를 어떻게 드려요?

신앙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 신앙고백의 기본 설교 22편을 담았다.

아빠!
어떻게 열매 맺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요?

신상수훈은 천국시민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과 규범을 가르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로 알고 실천적 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천국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최명일 지음 | 360면 | 13,000원(라권)

'Synergy Retreat' Offers Pastors Time of 'Mutual Learning and Encouragement'

BY RACHAEL LEE

A group of Asian American pastors of various backgrounds gathered in Oceanside, CA this week from May 2-4 for an annual retreat called 'Synergy,' during which pastors shared their insights and experiences on the topic of leadership.

Synergy, which began in 2006, was launched with the hope to "provide a place where pastors can learn from other pastors through a time of mutual learning and encouragement," said Steve Choi, the lead pastor of Crossway Community Church who started the gatherings.

"I started this retreat out of the desire to encourage the kingdom and bless other churches by encouraging the pastors," Choi explained.

This year's discussions were focused on the theme, "Leading Myself, Leading at Home, Leading the Church."

Choi was joined by 33 pastors, including Cory Ishida, the lead pastor of Evergreen Baptist Church of San Gabriel Valley; Sam Koh, the lead pastor of Hillside LA; Sam

Park of Community Church at Holliston; Tim Lee, the lead pastor of South Bay Mission Church; Woogie Kim,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at Shalom Presbyterian Church; and Ed Kim,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at Gardena Presbyterian Church; among others.

Pastors and ministers of various backgrounds attended this year's retreat, including one who does overseas mission work, church planters, English ministry pastors, and seminary professors. Many came from outside of California, including from Plano, TX, Atlanta, GA, and Sydney, Australia.

"This is one of my favorite events for pastors because it's somewhat more casual and intimate," shared Steve Chang, the lead pastor of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which is one of the sponsoring churches of the retreat.

Other churches who sponsored this year's gathering include Jubilee Presbyterian Church, Good News Chapel,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Evergreen Baptist Church of SGV, and Crossway Community Church.



(Photo courtesy of Steve Choi) Pastors from various regions attended this year's 'Synergy' Retreat which took place in Oceanside, CA.



About 300 people gathered at the prayer meeting which took place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on the National Day of Prayer.

'As Long as People Pray, There Is Hope for the Nation'

BY RACHAEL LEE

As about 47,000 prayer gatherings were reported to have taken place on Thursday, some 300 Korean Christians also gathered in Fullerton, CA on Thursday evening to commemorate the annual National Day of Prayer and to intercede for the elected officials, schools, families, and laws of the country.

Though the National Day of Prayer (NDOP) has taken place each year since 1952, this was the first to come after the *Obergefell v. Hodges* ruling that legalized same-sex marriage, and this year's NDOP also comes during a time when North Carolina's bathroom law has been the center of controversy.

"Forgive this nation for departing from your standard regarding marriage," pastors prayed at the Korean Christian gathering. "Help your church to teach biblical family values and let your standards for family be restored in this nation."

Despite the emphasis on the "moral decline" of the country, many also took a hopeful tone.

"At this point in time, many of the dark aspects of our nation are being revealed," said Rev. Paul GiHong Han, the senior pastor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To note, Han was mentioned by the Associated Press last year for saying that same-sex relations are sinful during the NDOP gathering that took place in Washington, D.C.

"But as long as there are many people praying for this nation, there is hope," Han said. "And that's because God will do the restoring."

"It's time to put our lives on the line to pray," he added.

Pastors also prayed for other topics such as the next generation, campus organizations, world missions, healing and unity within the church, people in oppression through crimes such as human trafficking, and others.

Prayers for President Obama, Congressmen, state legislators, and members of the Supreme Court were also offered, and a prayer for the successor of the late Justice Antonin Scalia on the Supreme Court was also lifted.

A video greeting from Congressman Ed Royce was also featured, during which he encouraged the congregants to pray for those held captive by ISIS and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Several Korean Christian groups sponsored and hosted this specific gathering, including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SOON Movement, Holy City Movement, Fire Crusade, and others.

To note, many of these sponsoring and hosting organizations have been involved in organizing numerous previous prayer meetings to pray for the nation. Most recently, they led the rally of Korean Christians during the Azusa Now gathering that took place at the L.A. Memorial Coliseum in early April, and in November, they hosted a gathering called 'Heal Our Land'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Another 'Heal Our Land' prayer gathering is set to take place in October this year, according to the organizers.

'We Don't Want Any Pastor to Feel Isolated or Alone'

Korean American Pastors' Conference Discusses Immigrant Church Issues, Pastoral Ministry Needs

BY RACHAEL LEE

A conference for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pastors sponsored by the PCUSA's Racial and Ethnic Ministries Department started off on May 9, and concluded on Thursday around noon (EST). The conference took place in Orlando, Florida.

Themed,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and One Church," this year's conference is the first that was spearheaded and organized by Korean American pastors rather than first generation Korean leaders. Previously, the gatherings had mostly been led by leaders from the 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NCKPC) within the PCUSA.

"We don't want anyone to feel isolated or alone as they struggle through certain challenges," said David Kim, the lead pastor of Harvest, the English congregation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Orlando (KPCO). "We chose the theme just to remind ourselves that we are fighting together and laboring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gospel and for the world."

Much of the conference was spent discussing the inter-generational dynamic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ut much on the other aspects of simply being a

pastor -- such as self-care, spiritual formation, and pastoral ministry -- was also discussed.

First generation Korean pastors including James Kwon, the senior pastor of Community Church of Seattle; Paul Kim, the senior pastor of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in Herndon; and Inki Kim, the senior pastor of Vision Church (the Korean congregation of KPCO), were featured as 'mentor' guests during the conference and as panelists during the second day.

These pastors shared their advice regarding enduring hardship, immigrant church ministry,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and balancing work and rest, among others. They also shared their thoughts on what they envision the future of the Korean American pastors to be.

"The multi-ethnic church is part of what you will have to do," shared Paul Kim. "Because the Korean immigrant [population] -- it's not going to increase; if anything, it will decrease."

"If you only focus on the Korean church, there's no future," he continued. "Look at your daily and weekly schedule. How many non-Korean contacts do you have? If you don't have many, then you won't be able to bring them to church."

"Maybe this is the time that God



(Photo courtesy of Davd Kim) About 45 pastors and leaders gathered at the recent Korean American pastors' conference that took place in Orlando, FL.

is stretching us to reach out to different people -- prepare yourselves for that. Culturally, a lot of interesting things are happening. LGBT issues are going to be very challenging for you ... and you as a church should be prepared for that."

John Cha,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at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and Paul Kim also led two sessions, one of which was entirely dedicated to sharing their own story on how their interdependent church model was formed, maintained, and strengthened through the years. Harold Kim, the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lso spent time during

one of the sessions sharing how Christ Central became an independent congregation but continues to share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Korean congregation,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Relationship is the foundation for meaningful, lasting change," said John Cha and Paul Kim as they shared their reflections. Harold Kim also emphasized relationship and said it's particularly important given the cultural context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In a White church, I might say that vision is more important," Kim said, "but in the Korean church, it's all about relationship."

Other than the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specifically, speakers also touched upon general pastoral issues, as James Kwon spoke during the first night regarding the power of God's love, and Harold Kim spoke on the importance of thanksgiving in having a healthy ministry.

Kwon, as he emphasized God's love, said that that is the "essential element we shouldn't forget, that we should carry until the day of the Lord's coming."

"I don't know why God saved me," Kwon said. "I don't know why God called me. I don't understand. All I know is God loves me so much. Whenever I think about his love, what he has done and is doing in my life, who he is, I'm just really thankful and very happy."

Pointing to the epistles of Paul, Harold Kim said that being involved with the growth of the gospel among the church and all over the world brings about thanksgiving, and that that's significant in having a healthy church.

"How does [Apostle Paul] not cease to give thanks? This is essential to having a healthy church," Kim said. "For Paul to be continually, ceaselessly thankful, is that he is involved intimately and personally with the dynamic and irresistible growth of the gospel."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Baby Box' Becomes Installed in the U.S. for the First Time at Indiana Fire Station

Indiana became the first state in the U.S. to install "baby boxes" under the purview of "Safe Haven" laws where mothers can surrender their babies under government care without revealing their identities.

Safe haven laws, or "Baby Moses" laws, allow abandonment of babies at places sanctioned by government, and are implemented all around the country. Parents are not questioned about their decision at the safe haven locations at fire stations, hospitals, and police stations. However, many parents avoid disclosing their identity and even stay away from the safe haven locations.

In September last year, a baby was found wrapped in several layers of coats outside a church in Indiana near a Safe Haven location.

To prevent parents from abandoning their babies outside, two "Safe Haven Baby Boxes" were opened late last month in collaboration with faith-based and pro-life groups at Indiana fire stations.

The "baby boxes" are climate-controlled and allow air circulation. The doors are automatically locked once the door is shut after putting the baby inside. Fire and medical personnel are alerted to retrieve the baby within minutes, and then take him or her to a hospital for a medical evaluation. The child is then handed over to the state's Child Protection Services.

"Anything we can do to make that

specific situation better," Wes Rogers, captain at the Cool Spring Fire Department told Indystar. "We try to do it every day with running our calls, fighting fires and helping sick people. This is just another way to help."

The proposal of "baby box" installation at public facilities was approved by the state government under the provisions of existing safe haven laws.

In the U.S., the safe haven laws were first introduced in Texas in 1999 when bodies of about 10 babies were found in city trash cans. The legislation was later adopted in other 50 states as well.

The baby-box arrangement was common in the middle ages, and was reintroduced in the modern era in 1952 in Pakistan. Since 2000, many countries have installed baby boxes, and it is relatively common in Europe, most notably in Germany which has about 100 baby hatches. Pakistan has installed over 300 baby boxes.

The baby box concept has also become well-known among the Korean community as the story of a Korean pastor named Jong Rak Lee, who installed a baby box and has taken care of hundreds of abandoned children since 1999, has been made into a documentary called, 'The Drop Box' and was released in March of last year.

Monica Kelsey, who pioneered the creation of the first two baby boxes in the U.S. with the help of other non-profits, is a volunteer firefighter and an ardent an-

ti-abortion advocate. Knights of Columbus, a Catholic organization, will fund the first 100 incubators at an estimated cost of \$1,500-\$2,000 per box.

In 1972, Kelsey was abandoned by her 17-year-old mother who was raped and then left to die, according to her autobiography. Her mother had considered an abortion at an underground clinic because abortion was illegal at the time. At the clinic, she had a change of heart and did not terminate the pregnancy. After Kelsey was born, she was left at a hospital.

The provision of baby boxes was opposed by the Indiana Department of Health on the grounds that they might incur high costs of installation and 24/7 monitoring. The department also expressed concern about the safety of such boxes in extreme weather conditions and power outages. The health officials instead recommended increasing awareness about current Safe Haven facilities.

Kelsey has founded Safe Haven Baby Boxes Inc., and said that she had intended to fund the boxes privately, and was not seeking state grants. She had asked the health department 18 months to standardize and improve the incubators.

"We have listened to all the concerns and listened to all the criticisms, and it's helped us improve the box," she said. "We've never lost focus on our goal. It's to save these babies that are abandoned."

Most in U.S. Believe the Church Plays Significant Role in Racial Reconciliation

BY AMY KIM

A recent study found that 94 percent of evangelical Christians said they believe the church plays a significant role in racial reconciliation.

73 percent of all adults agreed with the same notion, according to the Barna Group study released on May 5.

"This is extraordinarily hopeful news for the Christian church at-large," the Barna Group stated.

66 percent of Millennials, 69 percent of Gen-Xers, 79 percent of Boomers, and 84 percent of Elders are anticipating that the Christian church would set an example by being more active in bringing racial harmony. 43 percent of non-believers also said the chur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racial reconciliation.

The study asked Americans on their opinions regarding various racial issues by asking questions such as, 'Is racism a former or current problem?' 'Is race or ethnicity a major factor as to why people feel underprivileged?' and, 'Is the church playing a role in the issue or can the church help in bringing racial harmony?'

Regardless of age, sex, social status, or faith, 84 percent of Americans said they believe racial tension endures. Furthermore, they affirm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temper and animosity between ethnic and racial groups in America.

Evangelicals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racism is mostly a problem of the past, not the present," as 13 percent of evangelical respondents agreed with that statement, while 7 percent of all adults and 3 percent of those who did not identify with any faith agreed.

On the other hand, 12 percent of conservatives and 4 percent of liberals agreed that racism is more of an issue



(Photo: Elvert Barnes/CC) People observed a prayer vigil in Washington, D.C. in June of 2015 in honor of the victims of the Emanuel AME Church shooting victims.

of the past.

Seven in ten Americans believe that minorities "are often put at a social disadvantage because of their race." Evangelicals are also less inclined than the overall population to agree with that statement, as 28 percent of evangelicals "strongly disagreed," as opposed to 12 percent of all adults who did.

Meanwhile, 71 percent of Whites were more likely to believe that "reverse racism, or a prejudicial treatment of white people, is a problem in our society today," while 46 percent of Blacks and 65 percent of all adults agreed with that statement.

According to Brooke Hemphell, vice president of research at Barna Group, "[This] research confirms the fear that the church [members] may be part of the problem in the hard work of racial reconciliation."

"If you're a white, evangelical, Re-

publican, you are less likely to think race is a problem, but more likely to think you are a victim of reverse racism," Hemphell continued. "You are also less convinced that people of color are socially disadvantaged. Yet these same groups believe the chur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onciliation. This dilemma demonstrates that those supposedly most equipped for reconciliation do not see the need for it."

She said this kind of attitude "is a dangerous reality for the modern church." She pointed to Jesus as the perfect example who sought to mend and integrate people of all races, but today's ministry fails to desegregate the groups of people attending church.

Hemphell added that "research has shown that being cognizant of our biases leads to change in biased behavior," and that the first step is to acknowledge the problem and to seek reconciliation.

North Carolina, U.S. Justice Dept. Exchange Lawsuits Over Bathroom Law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North Carolina remain at odds with each other, and filed counter lawsuits accusing the other of misinterpreting and violating the law.

The Justice Department sued the state of North Carolina and Governor Pat McCrory at a federal district court in the state citing violation of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1964), Title IX of Education Acts Amendment (1972),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authorization Act, and asked the court to have the state repeal the bathroom ordinance.

Several hours earlier, North Carolina filed a lawsuit at a different federal court accusing the Justice Department of "radical reinterpretation of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and "baseless and blatant overreach." The state asked the court to decide whether the

recent state legislation requiring all individuals to use bathrooms in accordance with their biological sex was in violation of US law.

"We're taking the Obama admin to court. They're bypassing Congress, attempting to rewrite law & policies for the whole country, not just NC," McCrory, a Republican, wrote on Twitter.

U.S. Attorney General Loretta Lynch, who spoke at a press conference after filing the lawsuit, said that at present the Justice Department is seeking certification from North Carolina to ban the bathroom law, but squeezing federal funding was one of the options that could be considered in future.

"While the lawsuit currently seeks declaratory relief, I want to note that we retain the option of curtailing federal funding to the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and the Uni-

versity of North Carolina as this case proceeds," Lynch said.

Lawyers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told Reuters that North Carolina may lose \$4.8 billion funds, mostly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f it does not repeal the Public Facilities Privacy & Security Act, also known as House Bill 2.

House Bill 2 was passed in March this year, and North Carolina became the first US state to pass a law requiring people to use restrooms and changing rooms in accordance with their birth genders. Earlier, the ordinance was supposed to be implemented across the state, but later its enforcement was limited to government premises. The amendment now permits local governments to make their own laws, and reinstates the right to sue the government for discrimination.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f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정의 달 SALE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SE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3 In Stock With
MSRP \$62,450

All in Stock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10,0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6 HYUNDAI
GENESIS Signature Package

Lease It For **\$239** +Tax

All In Stock With
MSRP \$43,785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3,500 Lease Cash,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